

“소통은 현장에 답이 있었다” | 백경태 전 전북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

“주말도 휴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북 밖의 출향도민들이 반갑게 맞아주실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7월 30일자로 전북특별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직을 마무리한 백경태 국장의 얼굴에는 아쉬움보다 담담한 미소가 먼저 번졌다.

지난 1년 7개월 동안 그는 집무실보다 축제 현장과 국회, 도의회 전국 각지의 출향도민 행사장을 더 많이 누볐다. 행정의 최전선에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잇고, 전북의 미래를 연결하는 일이 그의 역할이었다.

백 전 국장은 “대외국제소통국은 책상에 앉아 있는 부서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야 하는 부서”라며 “출장과 주말 행사가 워낙 많아 직원들도 고생이 많았지만 모두가 전북을 위해 헌신해 준 덕분에 전북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가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 꼽은 것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전북사랑도민증 확대 사업이다.

대외국제소통국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시·군 사업에 도비 30%를 지원하며 14개 시군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심의에 추진했다.

시행 초기보다 기부 규모도 꾸준히 증가했고, 현재도 답례품 증정 이벤트 등을 통해 참여 확대를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백 전 국장이 애정을 쏟은 사업은 전북사랑도민증 사업이었다.

전북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출향도민과 전북을 사랑하는 외지인들이 전북을 방문하면 관광 할인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현재 가입자는 약 8만3,000여명이다.

그는 “앞으로는 50만명, 나아가 100만명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며 “출향도민은 전북의 가장 큰 자산이며, 결국 사람의 네트워크가 전북의 경쟁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자신과 동청 직원들은 주말을 반납하고 다른 지역 축제장을 찾아 홍보부스를 운영했고, 직접 시민들을 만나 가입을 독려했다.

“국장으로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직원들이 휴일까지 반납하며 뛰어다녀야 했던 점입니다. 하지만 모두 전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백 전 국장은 재임 기간 동안 인천과 부산, 울산, 통영 등 전국 출향도민 행사장을 직접 찾았다.

그는 “다른 시·도는 과장급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북은 국장이 직접 찾아가니 출향도민들께서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다”며 “그 따뜻한 환영이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가족과 보내야 할 시간을 지역을 위해 내놓았지만 그는 “힘들기보다 전북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보람이 더 컸다”고 말했다.

백 전 국장의 또 다른 강점은 소통이었다.

전북도의회에서 무주를 지역구로 9·10대 의원을 지냈고, 이후 전북도청에서 정무보좌관을 2년간 역임한 경험은 행정과 정치권을 잇는 든든한 자산이 됐다.

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도의회 의원들과의 소통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의원들의 민원을 듣고 집행부와 연결해 해결책을 찾는 과정은 그의 일상이었다.

“도의원님들의 민원 가운데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풀어가야 할 때마다 의원님들이 고마워하시고 신뢰가 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회와의 조찬 간담회도 정례화했고, 국회의원 보좌진들과의 정책 간담회도 새롭게 만들었다.

실질적인 정책을 다루는 보좌관들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해 국회와 전북도의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여기에 여야 정당은 물론 라이온스클럽, 로타리 클럽, JC 등 다양한 사회단체와도 꾸준히 교류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탤다.

대외국제소통국은 정치권과의 협력뿐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와 국제협력진흥원 업무도 맡고 있다.

백 전 국장은 삼계탕 나눔 봉사 현장과 외판 마을을 직접 찾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어르신들을 만났고, 외국인 주민의 복지와 인권 문제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도지사가 참석하는 주요 행사 대부분을 함께하며 현장을 챙겼고, SNS와 온라인 홍보, 각종 광고 등 변화하는 홍보환경에도 적극 대응했다.

그는 “대외국제소통국은 결국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조직”이라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말했다.

1961년 무주에서 태어난 백 전 국장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무주읍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지인들도 찾아볼 계획이다.

“파크골프도 배우고 싶고, 무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힘을 보태겠습니다.”

무주군 공직자들도 도청에 출장이라도 올라치면 “백 국장님부터 찾아뵙자”고 할 만큼 지역에서의 인망도 두텁다.

퇴임 이후에도 그의 소통은 끝나지 않을 듯하다.

백경태 전 국장의 공직은 화려한 성과를 앞세우기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둔 행정이었다.

휴일을 반납하며 전국을 누볐고, 정치와 행정의 가교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으며, 출향도민과 지역사회를 잇는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전북사랑도민증 가입자 8만3,000여명,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국회와 도의회, 정당과 사회단체를 아우르는 촘촘한 소통망은 그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큰 성과물이다.

인터뷰를 마치며 백 전 국장은 “전북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던 시간이 제게 가장 행복했다”고 짧게 말했다.

그 한마디에는 지난 1년 7개월 동안 집무실보다 현장

을 더 많이 찾았던 한 행정가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전북발전을 위해 험악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며, 전북의 내일을 위해 힘 없이 달려온 그의 소통은 이제 직함은 내려놓았지만, 고향 무주와 전북 곳곳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2026 군산 MICE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군산시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는 최근, GSCO 회의실 208호에서 ‘2026년도 군산 MICE 서포터즈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군산 새만금 예비국제회의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발대식에는 군산시 관계자 및 GSCO 임직원, 최종 선발된 서포터즈 9명 등이 참석해 서포터즈의 첫 출발을 축하하고 소속감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1부에서는 서포터즈 대표자의 선서문 낭독과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되었으며, 2부 정기 교육에서는 로컬 브랜드 전문기업 ‘브랜더스’ 편제현 대표가 강사로 참여해 ‘군산 로컬 관광 및 K-관광’을 주제로 지역 관광 자원과 MICE 산업을 연계한 실무 지식을 전달해 서포터즈의 홍보 및 기획 역량을 한층 높였다. /군산=김만호 기자



정음조합운영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쌀 전달

정음시 관내 농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정음시조합운영팀의 회(협의회)가 지난날 31일 공공영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게 쌀 450kg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이날 정음시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를 찾아 고국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근무하며 정음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에 힘쓰고 있는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나눔은 이들에게 지역사회의 따뜻한 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음=김대환기자



남원 동충동 지사협, '아이스데이' 추진

남원시 동충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비라, 조태봉)가 최근, 북화사업의 일환으로, 동충동발전협의회 및 '우리마을돌봄단'과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식사 및 아이스크림 나눔 행사 '동충동 아이스데이'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폭염으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사회적 고립가구와 1인 가구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와 디저트를 함께 나누며 안부를 확인하고 이웃 간 교류를 통해 무더위 극복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바음안심박스'도 운영해 우울 선별검사 및 뇌파 스트레스 검사 등을 실시하며 주민들의 심리·정서 상태를 살피는 시간도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사매면서 LED 조명 교체 · 뉴테어 전달식

남원시 사매면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한전MCS 남원지점(지점장 정호성), 한국전력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정연일)와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과 건강한 일상 지원을 위한 LED 조명 교체 및 뉴케어 정달식을 LED 전등 교체 지원 20가구와 뉴케어 지원 20가구 총 40가구에서 가졌다.

전달식 이후 MCS 남원지점 직원들은 리모컨식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 제공해 전기요금 절감 효과도 있어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했다.

또한 뉴케어 지원 대상 20가구에는 영양 보충 음료인 뉴케어 1상자씩을 전달해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민과 소통하는 특별한 축구 응원 행사 성황리

전북은행, 전북현대와 함께한 'JB파트너데이'

경기 전 공식 파트너십 협약... 선수단 격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이 전북현대모터스FC와 함께 지역민과 소통하는 특별한 축구 응원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전북은행은 지난 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모터스FC와 FC서울의 홈경기에서 '2026 전북현대모터스FC와 함께하는 JB파트너데이'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민들의 마음속에 가장 따뜻한 금융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대표 금융기관과 프로축구단의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들에게 즐거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기 전에는 공식 파트너십 협약식이 진행됐으며, 박춘원 은행장은 “전북은행과 정원호 노조위원장이 선수단을 격려하고 직접 시축에 참여했다.”

특히 전북은행 임직원 자녀 22명은 에스코트 키즈로 참여해 선수들과 함께 경기장에 입장했으며, 임직원 500여 명은 응원단으로 나서 전북현대의 승리를 함께 응원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을 대상으로 전북은행 ‘축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와 홍보 활동을 진행해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박춘원 은행장은 “전북은행은 지역 연구 구단인 전북현대FC와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상생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과 전북현대를 응원해 주시는 도민과 고객을 위한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이어가며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고영철 신협중앙회장, 노송신협 · 상진신협 방문... 현장경영 강화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이 전북지역 신협을 찾아 조합 운영 현황과 지역 현안을 점검하며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허동욱)는 지난날 31일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이 노송신협과 전주상진신협을 방문해 조합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경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이문규 신협중앙회 관리이사과 허동욱 전북지역본부장, 양춘제 신협 전북지역협의회장을 비롯해 전북지역 6개 지역협의회장이 함께해 지역 조합의 주요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고 회장의 전북 방문은 올해 두 번째다. 지난 3월에는 고창군의 무장신협과 삼광신협을 찾아 농촌 및 소규모 조합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취임 이후 전국 회원조합을 순회하며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노송신협과 전주상진신협의 재무현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조합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 조합이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청취했다. 신협중앙회는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조합의 동반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신협의 경쟁력은 현장에 있으며 조합의 목소리가 곧 중앙회의 정책이 돼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정책과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정음통합미곡종합처리장 선별시설 본격 가동

정음시가 정음통합미곡종합처리장(RFC)에 색채선별기와 이물선별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시는 지역 쌀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미곡종합처리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개선사업'을 최근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전북자치도 보조사업으로 추진됐다. 새로 설치한 색채선별기는 쌀의 색상과 형태를 정밀하게 분석해 품질이 떨어지는 쌀알을 골라낸다. 이물선별기는 가공 과정에서 섞일 수 있는 돌과 금속 등 각종 이물질을 제거해 최종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정음=김대환 기자



부안농협, 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부안군에서는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이 지역상생과 부안군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6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부안농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며 2년 연속 부안군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했다. 부안농협 임직원들은 지역 농업 발전과 부안군의 활력 제고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부에 참여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전북대 치과대학, 김제시 의료봉사 나서

김제시는 지난날 31일 전북대학교 치과대학(학장 양연미)이 김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아동들의 구강 건강 증진과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 형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김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다목적실 및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의료진과 학생으로 구성된 봉사자 30명이 참여했으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구강질환 상담을 실시했다. 또한 레진 수복, 유치 발치, 스케일링, 불소 도포 등 다양한 치과 진료 서비스와 구강 교육을 제공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구강질환 예방에 힘썼다. /김제=곽노태 기자